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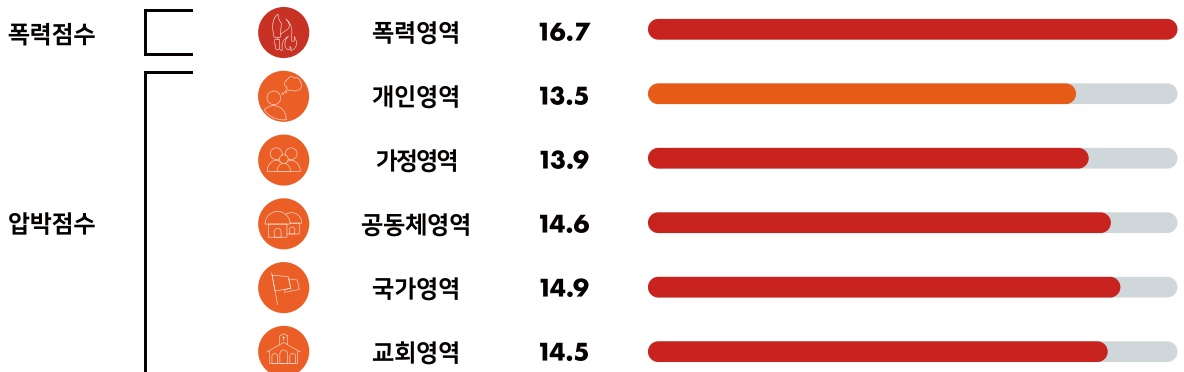
나이지리아(NIGERIA)

기독교 박해지수

7 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기독교인들은 민족-종교적 적대감, 이슬람 억압, 종교적 민족주의, 독재자의 편집증, 조직적인 부패와 범죄의 숨막히는 조합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전 정부는 보코하람과 현재 더 강력하게 분열된 ISWAP(서아프리카 이슬람 국가), 풀라니족 무장 세력 및 여러 무장 도적 단체의 공격으로 북부에서 발생하는 이슬람 무장 폭력 증가를 막는 데 실패했다. 아프리카 종교 자유 관측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보코하람과 ISWAP에 비해 풀라니족 무장 세력과 무장 도적 단체가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변 국가에서 풀라니족 무장 세력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폭력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에는 인명 손실, 신체적 상해, 강간, 납치, 재산 손실, 농지 파괴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토지와 생계 수단을 빼앗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 실향민 또는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이지리아 북부, 특히 샤리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따르는 주에서 기독교인들은 2등 시민으로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기독교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으며 종종 물리적 폭력에 직면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폭력이 증가하고 남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불안감과 불처벌 수준이 높아졌다. 부하리 전 대통령은 무슬림들을 정부의 주요 요직에 배치하여 인권 침해를 당한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 현 티누부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를 부분적으로 반전시켰다. 공격을 받은 기독교 공동체는 연방군의 지휘를 받는 보안군에 의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종교적 동기에 의한 폭력은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를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풀라니 목동과 가축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목동과 농부 관계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두 가지 새로운 트렌드이다. 첫째, 북서부에서 첨단 무기와 급진적 이슬람주의 의제로 무장한 새로운 지하드 테러 단체인 '라쿠라와'가 등장했다. 라쿠라와는 말리에서 시작된 확장주의 알카에다 반군인 자마 누스라트 울 이슬람 와 알 무슬림과 연계되어 있으며 JNIM이라고 불린다. 둘째, ISWAP-보코하람 통합 전선의 출현에 대한 보고가 나왔다. 나이지리아의 한 안보 분석가에 따르면, 사헬 지역에서 지하디스트 그룹 간의 지속적인 동맹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 (NIGERIA)

국가 정보

지도자 : 라 아메드 아데쿤레 티누부 대통령
인구 : 229,152,000명
기독교인 수 : 106,608,000 명¹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연방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106,608,000	46.5
무슬림	105,322,000	46.0
민족-종교인	16,417,000	7.2
불가지론자	592,000	0.3

출처²

나이지리아의 민주적 전환은 16년간의 군사 통치가 끝난 1999년에야 이루어졌다. 범진보의회(APC) 출신의 부하리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2023년 5월 집권 후 티누부 대통령은 대대적인 개각을 통해 보안 책임자(및 기타 서비스)를 교체하여 무슬림과 기독교 비판적 공직자 간의 균형을 맞췄다(AI-Jazeera, 2023년 6월 20일). 또한 그는 북부의 무슬림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출신 지역인 남서부 무슬림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부여했으며, 이는 계속되

¹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²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어 티누부는 다른 민족 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Politics Nigeria, 2024년 3월 10일). 2023년 6월 13일 더 인사이트에 따르면, 티누부 대통령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나이지리아 내 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WL 2025 보고 기간은 그가 아직 이 점에서 성공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나이지리아 정치에서 민족과 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치인들은 민족적, 종교적 정서에 호소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노력한다. 역사적으로 무슬림 하우사-풀라니족 정치인들은 특히 나이지리아 정치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군대에서의 지배력으로 인해 정치 분야를 지배해 왔다. 나이지리아 정치의 주요 논쟁의 골자는 나이지리아의 막대한 석유 원에서 나오는 수입의 분배이다. 주정부와 연방 정부 모두에서 부패가 만연해 있다.

나이지리아 남부는 주로 기독교인(기독교인 71%)이 많은 반면, 나이지리아 북부는 주로 무슬림(기독교인 26%)이 많다. 종교적 분열은 부분적으로 인종적 분열과 일치한다. 북부의 하우사족과 풀라니족은 주로 무슬림, 남동부의 이그보족은 주로 기독교인, 남서부의 요루바족은 무슬림과 기독교 인구가 모두 상당수다.

헌법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세속 국가이지만, 수십 년 동안 북부 지배 엘리트들은 무슬림을 위해 기독교인을 차별해 왔다. 1999년부터 북부 12개 주에 샤리아법이 제정되었다.

무장 세력은 북부 여러 주에서 주로 기독교 마을을 공격하여 사람들을 살해, 강간, 납치하고 교회와 기타 건물을 파괴하며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농지를 점령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변 국가에서 풀라니족 무장 세력과 슈와족 아랍인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폭력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풀라니족을 중심으로 한 여러 무장 도적 집단도 강간, 살인, 재산 방화 등의 폭력을 일삼고 있으며, 특히 사람들을 납치하고 지역사회를 농노로 삼는 경우가 가장 많다. 보코하람과 ISWAP는 기독교인,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풀라니족 무장 세력이나 무장 도적 집단에 비해서

는 그 수가 적다. 이러한 다양한 반군 그룹 간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모두 기독교인을 특히 취약하게 만드는 '폭력 문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로 북부 주와 일부 남부 주에서도 마찬가지다.

2023년 말, 나이지리아에는 폭력으로 인해 330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 이 모든 폭력은 공포를 확산시키고 기독교인(및 기타 나이지리아 국민)에게 여러 차원에서 극도의 취약성을 초래하여 트라우마 상담 서비스가 극히 부족한 이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있다. 납치는 하나의 산업이 되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납치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몸값이 요구되는 '세대 간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 교구나 교회에서도 사제나 목사가 납치되어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가 스스로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는 현재 치안 불안으로 인해 10,000개 이상의 학교가 폐쇄되고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문맹, 조혼, 빈곤에 처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EDUGIST, 2024년 2월 4일 보도). 이로 인해 이슬람 무장 단체에 대한 모집이 더 쉬워져 폭력과 억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이 상황은 모든 민간인,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문제가 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는 6개의 지정학적 구역이 있다. 각 지역마다 기독교인(및 기타)에 대한 적대행위의 양상이 달랐다. 북동부 지역의 폭력은 주로 보코하람과 ISWAP에 의해 자행되었다. 북서부에는 여러 무장 도적 집단이 있었다. 카두나 주를 포함한 중북부에는 풀라니족 무장 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풀라니 무장 세력과 무장 도적 단체의 활동 영역은 서로 합쳐지고 부분적으로 겹쳤다. (ORFA, 2024년 8월 29일) 북부에서 '라쿠라와'가 등장했다. 라쿠라와는 말리에서 시작된 확장주의 알카에다 반군인 자마 누스라트 울 이슬람 와 알 무슬림과 연계되어 있으며 JNIM이라고 불린다. 폭력은 더 이상 북부 3개 지정학적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남부 3개 지정학적 구역으로 확대

되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그룹의 영향력이 점점 더 중첩되고 있으며, 어떤 폭력 그룹이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특정 그룹의 구체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범주는 WWL 점수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나이지리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 감리교, 루터교 등 개신교 교파가 있다. 이들 교회는 특히 북부 주에서 여러 이슬람 무장 단체와 무장 도적 집단에 의해 생명과 재산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과 지역 당국의 차별에 직면해 있다. 남부 주에서도 풀라니족 무장 세력의 토지 강탈과 주민 협박으로 폭력이 확대되고 있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들은 대부분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은 살해나 괴롭힘을 피해 집과 주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종종 '안전가옥'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남서부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발생하지만 남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복음주의와 오순절 공동체는 현재 나이지리아 교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경험은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와 비슷하다. 북부 주에서 복음주의와 오순절 공동체는 지역 당국의 차별은 물론, 여러 이슬람 무장 단체와 무장 도적 집단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다. 이들에 대한 폭력은 남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민족-종교적 적대감, 이슬람 억압, 종교적 민족주의, 독재적 편집증, 조직적 부패 및 범죄

나이지리아에서는 종교의 자유 침해의 원인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북부 12개 주는 샤리아 법의 지배를 받는다. 부하리 전 대통령은 대부분 북부 무슬림을 안보 기구와 주요 경제 부문의 요직에 임명했다. 그의 후임자인 티누부 대통령은 무슬림과 기독교 비탄적 공직자 간의 균형을 맞추었지만, 자신의 주 출신 무슬림들을 계속 임명해 비판을 받아왔다. 티누부 대통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전역에는 비무슬림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고 기독교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해결되지 않는 면책 문화가 존재한다. 비기독교인(특히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은 편협한 이데올로기와 폭력 선동을 통해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보코하람과 ISWAP와 같은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는 민간인, 특히 기독교인을 계속 표적으로 삼고 있다. 풀라니족 무장 세력과 다른 무장 도적 집단이 저지르는 폭력도 마찬가지다. 이는 북부 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남부 주에서도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가해자로는 기독교인, 가족(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과정에서), 정당 및 조직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거리 폭력을 저지르는 시민 폭도들이 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폴라니족 무장 세력, 여러 무장 도적 집단, 테러 단체인 보코하람과 ISWAP의 습격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공포에 떨고 있다. 여성과 소녀들이 납치되어 강간당하고 성노예가 되어 무장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 무장세력에 납치된 소녀들은 '결혼'되는 것 외에도 인간 방패나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은 때때로 아내를 더럽혀진 존재로 간주하여 더 큰 낙인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기독교인 여성과 소녀들은 난민 캠프에서 성폭력에 추가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자녀 양육권 거부
- 교육을 통한 차별/괴롭힘
- 사업/직업/직장 접근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종교적 복장 규정 강요
- 강제 결혼
- 마을/국가를 떠나도록 강요
- 표적화된 유혹
- 인신매매
- 폭력 - 사망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나이지리아 북부와 남부에서는 기독교 남성과 소년들이 폴라니 무장 세력, 무장 도적, 보코하람, ISWAP 등의 공격의 표적이 되어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현재 세대의 남성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가정의 출산율도 떨어질 것이다. 생존자들과 어린 소년들은 무장 세력에 강제로 편입될 위험이 있다. 기독교인 남성은 또한 고용과 교육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남성이 살해당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면 부양 가족은 빈곤층이 될 수 있다. IDP 캠프에서 기독교인 남성과 소년들은 신체적 폭력과 살인에 추가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상속 또는 소유권 거부
- 교육을 통한 차별/괴롭힘
- 사업/직업/직장 접근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정부에 의한 투옥
- 군대/군인 징집/양심에 반하는 복무
- 폭력 - 사망 / 신체적 폭력 / 심리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7	88
2024	6	88
2023	6	88
2022	7	87
2021	9	85

압박 점수와 폭력 점수(후자는 가능한 최대 수준)는 WWL 2025 보고 기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나이지리아의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인과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해 볼라 아메드 티누부 신임 대통령은 전임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 때보다 두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 직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에 대한 인권 침해의 정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보안군이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WWL 2025 보고 기간에는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3년 12월:** 12월 23일부터 나이지리아 고원주에서 3,000명 이상의 테러리스트들이 38개 마을로 흩어져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가하거나 마을에서 마을로 행진하는 끔찍한 공격이 발생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는 무장 테러리스트 대대가 8일 동안 마을을 습격해 최소 295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모니터링 단체인 Plateau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um이 기록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당한 기독교인	납치된 기독교인	성폭행당한 기독교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받는 기독교인
2025	3100	2830	1000*	10,000*
2024	4118	3300	1000*	10,0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종교 기반 폭력의 일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역학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세요.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해야 한다. 정확한 집계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둥근 숫자(10*, 100* 또는 1000*)가 제공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기호 숫자 10,000*, 100,000*, 1,000,000*도 마찬가지다.

개인 영역

나이지리아 북부(남부 일부 지역 포함)의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의 괴롭힘이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는 위험하다. 개종하지 않은 기독교인의 경우 이름만으로도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 이슬람 무장 단체의 공습에서 사람의 이름은 생사를 가를 수 있다. 많은 주의 시골 지역에 있는 (주로) 기독교인 커뮤니티에서 사는 것도 매우 위험하며 높은 수준의 공포를 유발한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국내실향민으로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가족 영역

기독교인들은 특히 북부 주(남부 일부 포함)에서 가정 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에게 자신의 새로운 신앙이 발각되어 자녀 양육권을 잃거나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한다. 기독교인 여성이 사별하면 무슬림 친척이 아이를 데려가 무슬림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다. 기독교인 부모가 난민 캠프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동체 영역

나이지리아 북부(남부 일부 포함)에서는 영어 또는 성경적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 병원,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무슬림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이 이교도로 간주되어 괴롭힘을 당한다. 심지어 남성은 '부도덕한 머리'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될 수도 있다. 통치 에미르들은 때때로 강제 결혼을 위해 기독교인 소녀들을 납치하는 데 연루되기도 한다. 정부의 편의시설은 기독교 공동체에 필요한 만큼 제공되지 않는다.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물 공급을 거부당해 몇 시간씩 걸어서 물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에서도 기독교인 거주 지역에는 위생 서비스와 같은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독교인이 다수인 지역보다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의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항민 중에서도 기독교인은 구호품 배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영역

다수 종교를 신성 모독하거나 모욕했다는 비난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무슬림과 대화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무함마드나 이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의 재산을 공격하는 사람은 거의 체포되지 않는 관대한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무슬림이 쉽게 풀려나거나 아예 기소되지 않는 범죄로 기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관할권이 없는 샤리아 법원에서 기소되기도 한다. 그들의 증거 가치는 무슬림의 절반에 불과하다. 헌법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만, 북부 12개 주에서 채택된 샤리아법이 이를 대체한다. 언론은 종종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공동체 충돌'로 보도한다. 무슬림이 소유한 언론 매체는 무슬림의 기독교인 공격에 대해 축소 보도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교회 영역

지역에 따라 이주민들은 (가정) 교회에 모일 수 있지만 심각한 보안 위험에 직면해 있다. 아랍어 기독교 문헌과 성경을 반입하는 것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무슬림에 대한 개종이나 선교 활동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나이지리아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나이지리아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국가가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ICCPR 제2조)
- 무차별 공격으로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고 있다(ICCPR 6조)
- 기독교인 여성들은 강간, 집단 강간, 성적 학대를 당한다 (ICCPR 7조)
- 기독교 어린이들은 북부 주에서 이슬람 종교 계율을 준수하도록 강요받는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 개종자들은 북부 주와 일부 남부 주에서 차별과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다(ICCPR 18조 및 26조)

나이지리아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아프리카 전통 종교(ATR) 신봉자들은 공격과 납치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8월 아프리카 종교 자유 관측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공격 및 살해된 종교인은 최소 154명, 납치된 종교인은 최소 184명이었다.

지역사회를 공격하는 무장 단체의 일원이 아닌 무슬림도 공격에 취약하다. 특히 북서부와 중북부 주에서는 많은 무슬림이 기독교인을 살해 및/또는 납치한 단체에 의해 살해 및/또는 납치당했으며 마을을 떠나야 했다. (위에서 언급한 ORFA 보고서 참조) 이러한 폭력의 대부분은 풀라니족 무장 세력과 도적 집단이 하우사어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시아파 무슬림 전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나이지리아 이슬람 운동(IMN)으로 알려진 특정 조직은 테러 조직으로 분류되어 법원 명령(2019년 7월 26일)에 의해 불법으로 선언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 운동과 관련된 시아파 관습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박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오픈도어의 나이지리아 사역

오픈도어는 1990년대 초부터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해 왔다. 우리의 비전은 총체적인 선교를 통해 새로운 박해 추세에 대응하고 정치 및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가시적인 존재가 되는 교회를 보는 것이다:

- 박해 대비 교육 및 지원
- 경제적 역량 강화
- 새 신자 돌봄
- 제자 양육
- 동원

